

천년설 논쟁

무천년설

초림 오순절

재림

천년왕국

영원한

역사선

(천상의 낙원과 지상의 교회)

나라

5B.C. A.D.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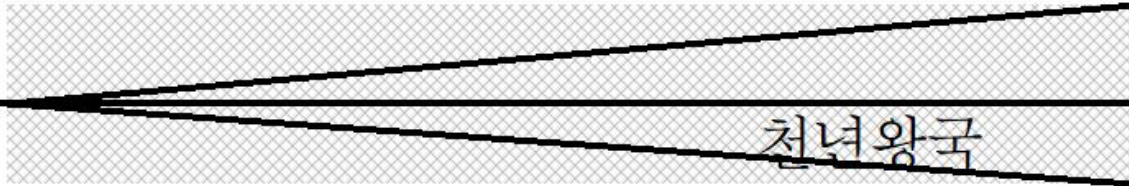
부활과심판



후천년설

초림 오순절

재림



영원한 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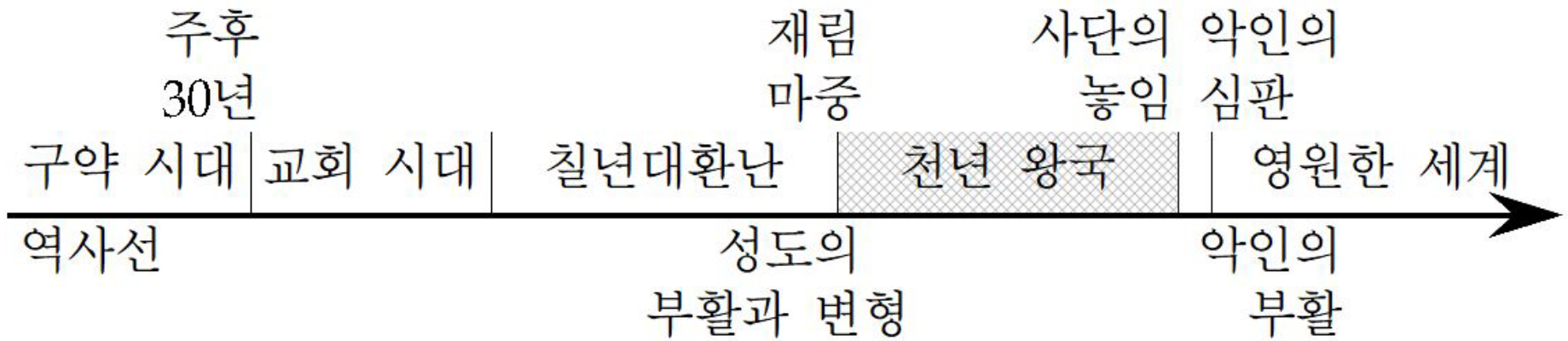
역사선

천년왕국

5B.C. A.D.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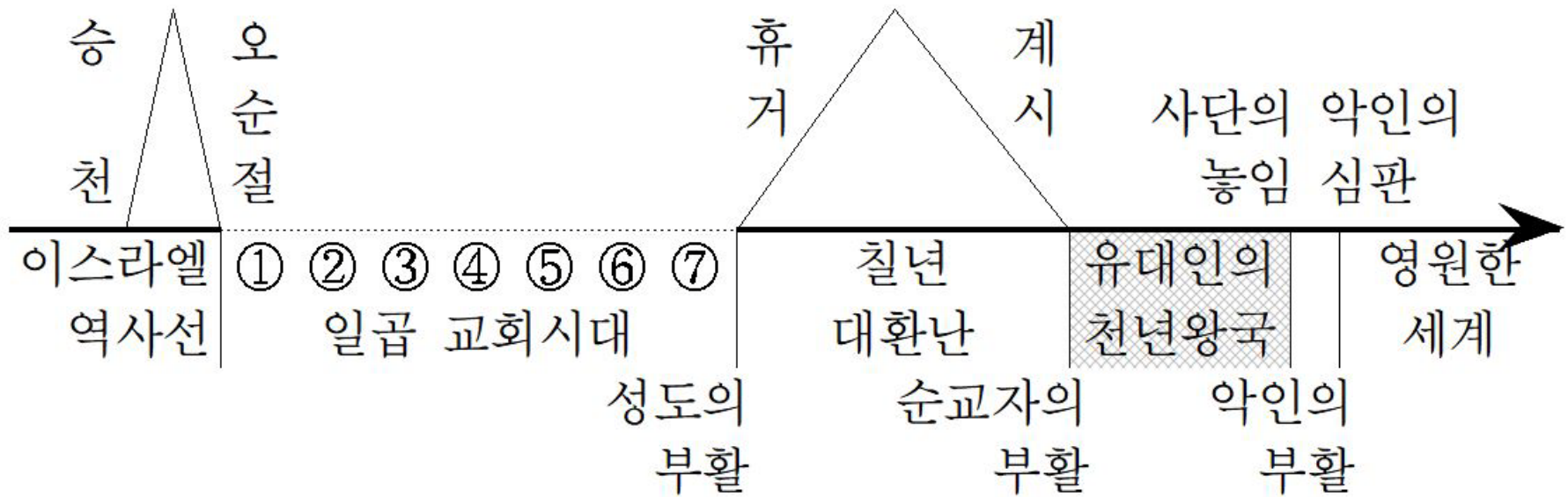
부활과 심판

역사적 전천년설



시대구분(세대주의)설

라. 시대구분설의 도표





70이레 도표

마. 70이레 도표

시대구분론자들이 주장하는 70이레는 구약 다니엘서 9장 24-27절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 내용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단 9:24)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칠십 이레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부음을 받으리라.

70이레 도표

(단 9:25)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육십 이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단 9:26) 육십 이 이레 후에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훼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단 9:27)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70이레 도표

이 말씀과 계시록 11-13장에서 언급된 삼년반에 근거해서 시대구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래와 같은 표를 만들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마지막 70이레이다. 시대구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주간을 주후 26년 69이레가 끝난지 수천 년이 지난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다고 주장하는 칠년대환난의 기간으로 해석한다. 여기서 70이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는데 주후 26년에 69이레가 마쳤고, 나머지 70번째 이레가 남았는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칠년대환난의 때로 미루어 해석한다면, 이스라엘은 그 때까지 지구상에서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스

70이레 도표

라엘은 주후 135년경에 나라를 완전히 잃었고, 1948년 5월 14일에 건국하였다. 환언하면, 이스라엘은 주후 26년 이후에도 135년까지 지구상에 존재했었고, 그후 나라가 없다가 1948년에 건국하여 지금 부국을 이루고 있다.

70이레 도표

| 457B.C. | 408B.C. | A.D.26 | 휴거 | 계시 | |
|--|--|---|--|----|----------------------------------|
| 7x7=49년 | 62x7=434년 | 30년/교회시대 | 칠년대환난 | 천년 | 영원한 |
| 7이레 | 62이레 | ①②③④⑤⑥⑦ | 1이레 | 왕국 | 세계 |
| 주전 457년에 예루살렘 을 중건하라 는 영이 내림 (단 9:25) | 주전 408년에 예루살렘성 중건 (단 9:25) | 주후 26년에 기름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남(단 9:25) 62이레 후에 기름부음 받은 자가 끊어짐 (단 9:25) | 장차 한 왕의 백성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함(단 9:27) 그이레절반에 제사와예물을 금함(단 9:27) | | 이미 정한 종말 까지 (단 9:27) |

70이레 도표

다니엘 9장 24-27절에서 말하는 마지막 이레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26년에 세레 받고 시작해서 30년에 끝낸 예수의 삼년반 공생애를 전 삼년반으로 볼 수 있고, 30년에 교회가 창립해서 34년에 바울이 개종한 때까지를 후 삼년반으로 볼 수 있다.

둘째, 66년에 시작해서 70년에 끝난 유대 전쟁과 예루살렘 멸망을 전 삼년으로 볼 수 있고, 전투에서 패배한 잔류 열심당원들이 마사다 성에서 투쟁한 70년에서 73년까지를 후 삼년반으로 볼 수 있다.

70이레 도표

셋째, 에피파네스 안티옥쿠스 4세가 즉위한 이후로 성전을 모독하고 유대교를 금하며, 헬라화를 추진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주전 168년까지를 전 삼년반으로 볼 수 있고, 마카비가 이끄는 하시딴의 승리로 유대교 금지령을 해제시키고, 성전 예배를 복원한 주전 165년까지를 후 삼년반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니엘이 예언한 장차 나타날 한 왕은 예수, 티투스,

중요 연대표

또는 안티옥쿠스 4세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다.

바. 중요 연대표

주전 612년 바벨론이 앗수르의 수도 니느웨성 함락

주전 609년 이집트의 느고 2세 팔레스틴 진군, 요시야 므깃도
에서 전사, 유대왕국 속국화

주전 605년 바벨론이 갈그미스에서 이집트 군대 제압, 제 1차
포로

주전 597년 바벨론이 예루살렘 정복, 제 2차 포로

주전 586년 바벨론이 예루살렘 함락, 성전파괴, 제 3차 포로

주전 539년 10월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 정복. 332년까지
이스라엘을 지배.

중요 연대표

주전 538년 고레스의 칙령으로 유대인 본국에 1차 귀환, 스룹
바벨 인도(스 1:2-4)

주전 516년 예루살렘 성전 건축

주전 457년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유대인 본국에 2차 귀환, 에
스라 인도, 예루살렘성 중건축(스 7:7; 단 9:25)

주전 432년 유대인 본국에 마지막 귀환, 느헤미야 인도

중요 연대표

주전 408년 예루살렘성 중건

주전 332년 헬라제국(알렉산더)이 팔레스틴 정복, 141년까지
이스라엘을 지배

주전 168-141년 마카비 독립전쟁

주전 141-63년 하스몬 집안이 독립 이스라엘 왕국 통치

주전 63년 로마제국(폼페이)이 예루살렘 함락. 주후 395년까지
팔레스틴을 지배

주후 26-30년 예수의 공생애 및 30년 교회 출범

주후 66-70년, 132-135년 유대 독립전쟁

주후 395-638년 기독교 비잔틴이 팔레스틴 지배

주후 638-1099년 칼리프 제국(아랍, 모슬렘)이 팔레스틴 지배

중요 연대표

주후 1099-1291년 십자군 시대

주후 1250-1517년 이집트의 팔레스틴 지배

주후 1517-1917년 오토만 터키의 팔레스틴 지배

주후 1917-1948년 영국의 위임통치(국제연맹)

주후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건국

예레미야서 25장 11-12절(단 9:2)에 의하면, 유대왕국의 포로기간이 70년간으로 예언되어 있다. 70년 포로기간은 두 가지 연대 측정이 가능하다. 첫째는 608년-538년=70년이고, 둘째는 586년-516=70년이다.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제 1차 포로이후 유대인들이 느헤미야의 지휘 하에 마지막으로 본국에 귀환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173년(605-432=173)이다.

이슬람 제국



오스만 제국 (1299-1922)

1683년 오스만제국의 최대 영역



천년설의 시대적 변천

10. 千年說의 時代的 變遷

첫째,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하기까지는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던 때이라, 전 천년설을 선호하였다. 파피아스, 이레내우스, 순교자 저스틴, 터툴리안, 히폴리투스, 메도디우스, 콤모디아누스, 락탄티우스 등의 초대교회 교부들이 전 천년설을 인정하였다.

둘째,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한 이후에는 어거스틴(354-430)의 후천년설의 영향을 받아 에베소 종교회의(431년)에서 전 천년설을 정죄하였다. 티코니우스, 빅토리누스, 안드레아스가 후천년설을 주장하였다.

천년설의 시대적 변천

셋째, 12세기 말엽에 와서는 요아킴이 다시 전 천년설을 주장하였다. 요아킴이 교황을 적그리스도인 짐승으로, 천주교회를 음녀로, 교황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때를 천년 왕국의 시작으로 해석한 영향으로 천년 왕국의 시작을 종교개혁이후로 보는 견해가 생겼다.¹¹⁾ 토마스 문처의 농민전쟁도 이 범주에 속한다.

11) 김철손, 『요한 계시록 신학』(대한기독교서회, 1989), 96-104쪽.



계시록 17장(Luther의 신약성서, 152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Georg Lemberger
의 공방이 1523년에 만든 것이다. 일곱 머리 열 벌 짐승을
탄 큰 성 바벨론의 큰 음녀를 묘사하였다.



계시록 17장(Luther의 신약성서, 1522)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CRANACH, Lucas the Elder의
공방에서 만든 계시록의 삽화 2장 가운데 하나이다. 일곱 머리
열 벌 짐승을 탄 큰 성 바벨론의 큰 음녀의 머리에 삼중관을 씌웠으므로
음녀가 가톨릭 교황이라는 점을 암시하였다.

루터 시대(독일)에 교황 을 음녀로 봤다는 정황

The Pope's triple crown, with VICARIUS FILII DEI, the Roman numerals adding up to 666



교황 그레고리 16세(Gregory XVI, 1831~1846)의 삼중관.
상층에는 "VICARIUS", 중층에는 "FILII", 하층에는 "DEI"라고 새겨
"하나님의 대리자"를 자처했다.



1871년 벨지움에 의해 교황 비오 9세에게 바쳐진 삼중관,
라틴어로 상층에 CHRISTI VICARIO(그리스도의 대리자 . Christ's Vicar),
중층에 IN TERRA(땅 위에 . On Earth), 하층에 REGVM(왕들 . Kings)이라고 새겼다.

천년설의 시대적 변천

넷째, 르네상스, 산업혁명, 계몽시대의 영향으로 낙관론이 득세하면서 후천년설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다. 다니엘 휘트비(1638-1726), 아우구스투스 스트롱, B.B. 워필드, 찰스 핫지 등이 여기에 속한다. 20세기 초 활발해진 선교 활동과 선교사 파송에도 영향을 받았다.

다섯째, 1827년 영국 성공회의 신부 요한 다비(1800-1882)가 시대구분설을 펴뜨린 이후 C. I. 스코필드가 주석성경을 만들 정도로 시대구분설은 인기리에 번졌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회복 등 역사적으로 맞아 들어가는 사건들을 인식하고,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여 1988년, 1992년 휴거설을 주장하였으나 모두 빗나가고 말았다.

미국 건국정신과 환원운동의 관계



- 우측 국장에서 흰머리수리가 부리에 “다수로부터 하나로”(E pluribus unum)라고 쓴 두루마리를 물고 있다.
- 좌측 국장 중앙에 황무지에 건설중인 피라미드와 그 위에 섭리의 눈이 있고, 하단에 미국 독립선언의 해인 “1776” 이란 숫자가 라틴어 문자(“MDCCLXXVI”)로 새겨져 있다.

- 통일, 자유, 독립, 개척정신의 상징으로써 1782년에 제정되었다. 국부들은 낙관적 후천년설의 입장에서 1776년 13개 주를 통일하여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미합중국을 건설하였고, 하나님께서 자국민들이 하는 일들을 ‘섭리의 눈’으로 보살펴 주시고 (ANNUIT COEPTIS: favorable to our undertakings), ‘새 천년시대의 새 질서’ (Novus Ordo Seclorum: New Order of Ages)를 열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18-19세기 미국의 성공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성공도 이 같은 통일, 자유, 독립, 개척정신과 ‘새 천년시대의 선구자’라는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THE

CHRISTIAN MESSENGER

AND FAMILY MAGAZINE;

DEVOTED TO THE

DISSEMINATION OF PRIMITIVE CHRISTIANITY.

ENLARGED SERIES:

VOL.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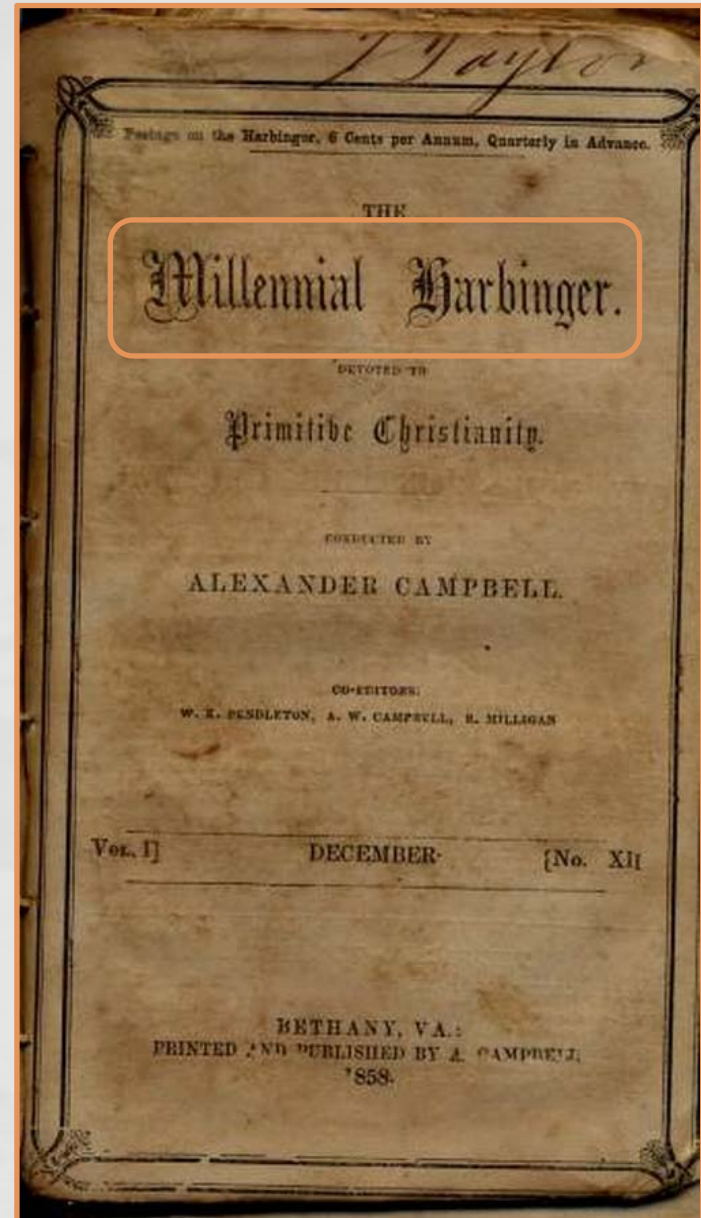


LONDON:

PUBLISHED BY SIMPKIN MARSHALL AND CO.,
STATIONERS' HALL COURT;

AND MAY BE HAD OF THE BOOKSELLERS IN ANY PART OF ENGLAND,
IRELAND, SCOTLAND, AND WALES.

1846.



천년설의 시대적 변천

한국에서는 일제의 탄압과 6.25동란 등 정치 및 경제적인 불안으로 전 천년설이 우세하였다. 특히 민중 불교인 미륵신앙의 강한 영향을 받고 있던 한국인들에게는 천년왕국설이 쉽게 받아들여 졌을 것이다. 미륵종교에는 천년왕국에 비교될 수 있는 용화세계, 낙원에 비교될 수 있는 도솔천, 그리스도에 비교될 수 있는 미륵이 있어서 기독교의 천년왕국설과 비슷한 교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라틴어 ADVENTVS(도착, 임재)
헬라어 PAROUSIA(도착, 임재)
용어의 사용 사례들.

- ◆이 용어를 신약성경에서 강림, 재림이라고 쓴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두 번째 오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황제의 도착(ADVENTVI AVG)



하드리아누스의 유대 도착 주화(주후 134/5-138년)
전면에 율게관을 쓴 얼굴을 돌려서 HADR IANVS AVG COS III PP
(하드리아누스 아우구스투스 집정관 3회 국부)라고 썼고, 뒷면 왼쪽에
하드리아누스가 유대에 도착해서 환영인파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는
모습과 오른쪽에 유대가 왼손에 신주병(神酒瓶), 오른손에 술잔을
들고 있는 모습,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로 흔들고 있는 모습, 그들 앞에
제단과 희생제물이 놓인 모습, 그리고 그 뒷면에 ADVENTVI AVG
IVDAEAE, SC(황제의 유대 도착, 원로원의 법령)이라고 새겼다.

황제의 도착(ADVENTVS AVG)



트라야누스 데키우스 황제의 로마 도착 기념 주화(주후 251년)
황제가 통치를 처음 시작했을 때(초림)이거나 먼 곳에 갔다가 돌아온
것(재림)을 기념하여 제조되었다. 도착, 귀환, 임재, 왕림 등을 뜻하는
라틴어는 어드벤투스(Adventus)이며, 헬라이 파루시아(parousia)에
해당된다. 전면에 찬란한 갑옷을 입은 데키우스 황제의 옆 얼굴 둘레에
IMP CMQ TRAIANVS DECVS AVG(황제 가이우스 메시우스 퀸투스
트라야누스 데키우스 아우구스투스)라 새겼고, 뒷면에 홀을 쥐고 군중에게
손을 흔드는 황제 둘레에 ADVENTVS AVG(황제 왕림)이라고 새겼다.
데키우스는 기독교를 극심하게 탄압하였고, 칙령을 내려 기독교도가 아니라고
명기한 증명서(libellus, 250)를 소지하도록 하였는데, 발급대상은 모든
로마시민권자들이었다. 카라칼라의 칙령(212)이후 속주민도 로마시민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로마제국의 모든 자유민이 이 법에 따라야 했다.

황제의 도착(ADVENTVS AVG)



콘스탄티누스 대제(AD 310-312)의 런던 도착 주화
전면에 갑옷 차림의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두상을 새겼고, 둘레에
CONSTANTINVS P(ius) F(elix) AVG(콘스탄티누스 경건하고 ^{충복}
받은 아우구스투스)라고 새겼다. 뒷면에 말을 탄 콘스탄티누스가 왼손에
창을 들고 있고, 오른손을 들어 환영인파에게 답례하는 모습을 새겼으며,
오른쪽 앞발을 올린 말 아래에 쫓고러 앞은 포로의 모습을 새겼다.
또 말꼬리 부분에 날개를 새겼고, 하단에 런던에서 주조되었다는 표시인
PLN을, 둘레에는 ADVENTVS AVG(황제의 도착)이라고 새겼다.

개선, 천사, 나팔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주후 121-180년)의 개선문 부조
게르만 민족을 물리치고 개선하는 황제의 머리 위로 수호천사
게니우스(Genius)가 부조되었고, 네 필의 말이 끄는 전차 좌측에
개선을 알리는 로마군대의 나팔수와 나팔(salpinx)이 부조되었다.

개선, 천사, 나팔, 환영인파



티투스의 개선문 부조(주후 81년, 복사본, 미국 LA카운티 미술관)
오른쪽에 투가를 걸친 티투스가 네 필의 말이 끄는 전차에 올라서있고,
뒤에서 여신 니케(승리)가 티투스의 머리에 월계관을 씌우고 있다.
전차 옆에 상체가 드러난 사람은 평민을, 투가를 걸친 사람은
원로원의 의원을 대표한다.
말고삐를 붙잡고 있는 여성은 여신 로마 또는 여신 통령을 상징한다.

**신약성경에서
황제들과 그들의 종교 사제들을 짐승
(박해자)이라고 한 이유.**

황제 - 적 그리스도(무력)

사제 - 거짓 선지자(교리)

◆고대시대에는 자주 황제들이 짐승으로 묘사되었다.

거짓 신(神)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의 주화(c. 215-164 BC)
전면에 안티오코스 4세의 옆얼굴을 새겼고, 뒷면에 보좌에 앉은
제우스가 오른손에 여신 승리(Nike)를, 왼손에 삼지창을 쥐는 모습을
새겼으며, 헬라어로 오른쪽에 ΘΕΟΥ ΕΠΙΦΑΝΟΥΣ
ΝΙΚΗΦΟΡΟΥ (신의 현현, 승리를 지닌자), 왼쪽에
ΒΑΣΙΛΕΥΣ ANΤΙΟΧΟΥ (왕 안티오코스)라고 새겼다.

거짓 신 (神)



티베리우스 황제의 주화(AD 20-29, 비잔티움)
전면에 "ΘΕΟΣ ΣΕΒΑΣΤΟΣ" (황제 신),
후면에 "ΘΕΑ ΣΕΒΑΣΤΑ" (황후 여신)이라고 새겼다.
전면의 인물은 황제 티베리우스(Tiberius, 재위 AD 14-37년)
이고, 후면의 인물은 모친 리비아 드루실라(Livia Drusilla)이다.
리비아는 아우구스투스(38 BC-AD 14)의 아내로 AD 29년에
사망한 로마의 첫 번째 황후였다.

거짓 신 (神)



티베리우스 황제의 주화(tetradrachm, AD 27-28, 알렉산드리아) 정면면에 "[TI]BERIOS KAISAR SEBASTOS"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황제), 후면면에 "THEOS SEBASTOS" (황제 신)이라고 새겨졌다.

거짓 신과 주



아우렐리아누스(주후 270-276년 재위)

전면에 황제의 옆얼굴 둘레에 DEO ET DOMINO NATO
AVRELIANO AVG(타고난 신과 주, 아우렐리아누스 아우구스투스)라고
새겼고, 뒷면에 월계관을 수여받는 모습을 새겼다.

거짓 신과 주



카루스(Marcus Aurelius carus, AD 282-283)
전면에 무적의 태양신(왼쪽)을 마주보고 선 카루스(오른쪽)를 새겼고,
DEO ET DOMINO CARO INVIC AVG(신과 주, 카루스 무적의
아우구스투스)라고 썼으며, 뒷면 오른손에 평화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왼손에 홀을 들고 서있는 여신 행복을 새겼다. 그리고 그 둘레에
FELICITA S REI PVBLICAE ·X·I·I·I·(행복, 공화국 원로원, 은 함량
10퍼센트)라고 적었다.

거짓 평강의 왕



주후 41-42년경에 주조된 금화

전면에 “티베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케사르 아우구스투스 대신관 공화국의
권력” (TI CLAVD CAESAR AVG P M TR P)이라고 새겼고,
뒷면에 “아우구스투스의 평화” (PACI AVGVSTAE)라고 새겼다.

거짓 보호자



테트라드라크마(tetradrachm, 4데나리온)
전면에 월계관을 쓴 옥타비아누스의 얼굴과 그 둘레에 IMP
CAESAR DIVI F COS VI LIBERTATIS P R VINDEX(황제
카이사르 신의 아들 집정관 6회, 자유와 로마시민의 보호자)라고 썼고,
뒷면에 평화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들고 있는 평화의 여신을 새겼으며,
그녀 왼쪽에 PAX(평화)를, 오른쪽에 상자에서 뱀이 올라오는 것을,
그리고 그 둘레에 월계관을 새겼다.

거짓 운명(행운)의 왕



엘라가바루스(Elagabalus, 주후 218-222년)의 데나리온
전면에 월계관을 쓴 황제와 "황제 안토니누스 피우스
아우구스투스"(IMP ANTONINVS PIVS AVGVSTVS)라고 쓴
글씨를 새겼다. 뒷면 오른 손에 방항키를 왼손에 풍요의
^뿔뿔을 들고 있는 운명(행운)의 여신 포르투나와 "포르투나
아우구스투스"(FORTVNAE AVGVSTI)라고 쓴 글씨를 새겼다.

거짓 관용(용서)의 왕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데나리온(주후 132-134년)
전면에 윗계관으로 머리를 묶은 황제의 얼굴을 새겼고, 그 둘레에 HADRIANVS AVGVSTVS(하드리아누스 아우구스투스)라 썼다. 뒷면에 관용(용서와 자비)의 여신 클레멘치아가 오른 손에 헌주를 담은 접시(patera)를, 왼손에 홀을 쥐는 모습을 새겼고, 그 둘레에 CLEMENTIA AVGV COS III P P(관용의 황제, 집정관 3회, 국부)라고 새겼다.



계시록 13장(Luther Bible, 153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Hans Burgkmair의 공방에서 만든 것이다. 바다에서 올라온 일곱 머리 열 뿔에 왕관을 쓴 첫째 짐승 적 그리스도와 땅에서 올라온 두 뿔을 가진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 (666)와 그들로부터 박해를 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묘사되었다.



게시록 13장(Otteinrich Bible, 1532)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Matthias Gerung의
공방에서 만든 것이고, 바다에서 올라온 일곱 머리 열 뿔에
왕관을 쓴 첫째 짐승, 적 그리스도를 클로즈업한 것이다.



라마수(Lamassu) 석상(넬루드 출토, 대영박물관 소장).
 아시리아의 사르곤 2세(721-705 BC) 궁전 코르사바드(Khorsabad)의 수호신으로서 메소포타미아 북부에서 약 4천년 전에 등장한 아시리아 제국 도시의 성문이나 궁전을 지키는 수호신이다. 황소 몸체에 세쌍의 날개와 사람의 두상을 가진 이 라마수는 아시리아의 왕 사르곤 자신이다. 머리에 황소의 뿔 세 쌍이 새겨진 관을 쓰고 있다.



다리우스 대왕의 수사 궁전의 스피нк스(480 BC, 루브르)
 사자 몸체에 세쌍의 날개와 사람의 두상을 가진 이 스피нк스는 페르시아의 수호신이자 다리우스 대왕 자신이다. 머리에 황소의 뿔 세 쌍이 새겨진 관을 쓰고 있다.



태양신이자 신들의 왕이며 바람(폭풍)의 신이자 바벨론의 수호신인 마르두크(Marduk)가 혼돈(흑암)과 바다의 여신이자 바다의 용인 티아마트(Tiamat)를 비극적으로 공격하는 바벨론의 부조(대영 박물관)



메소포타미아의 신족에 속하는 마르두크(Marduk) 태양신이자 신들의 왕이며 바람(폭풍)의 신이다. 또한 창조신이자 네 개의 날개를 가진 바벨론의 수호신이다. 손에 물통과 스펀지를 쥐고 있는 마르두크는 바벨론왕 느부갓네살(네부카드네자르, Nebuchadnezzar) 자신이다. 머리에 황소의 뿔 세 쌍이 새겨진 관을 쓰고 있다.



이집트의 신 아문(산양) ^별이 달린 알렉산더 대왕과 아문-제우스.
알렉산더는 아문 또는 아문-제우스로 ^별불려다. 다니엘서 7-8장에 나오는
^별별과 계시록 13장, 17장의 ^별별이 신성을 ^별참칭하는 제왕들을 상징한다.

산양 뿔이 달린 아몬-제우스
(테라코타, 1세기경)





투탕카문(Tutankhamun)의 황금마스크
수염과 정수리 부분에 코브라 뱀(여신 우제트)과 흰 독수리(우제트의
자매 네크베트) 머리가 이집트 왕권의 수호신으로 장식되어 있다.
상체를 세운 코브라는 우라에우스(uraeus)라 불리며, 우제트의 상징
이다. 이 황금마스크는 상체를 세운 코브라를 형상화한 것으로 보인다.



메두사^를 새긴 갑옷을 입고 이수스 전투(333BC)에 나선 알렉산더와 부케팔로스의 모자이크 형상(나폴리 고고학 박물관, 100BC, 복제)



알렉산더의 부하 장수 셀레우코스 1세가 만든 금화
알렉산더의 애마 부케팔로스의 머리에 소뿔을 새겼으며,
"BASILEOS SELEUKOS" (왕, 셀레우코스)라고 썼다.

◆이 같은 짐승들은 성경에서는 신성이 아닌 천사계급의 케루빔(생물, 세라빔)으로 등장한다.

<http://kccs.info/에스겔의 환상.pdf>

- ◆ 중세기 세파르딕 유대인 랍비요 의사였던 마이모니데스(Maimonides, AD 1135-1204)는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영적 존재들을 천사들로 보고 10등급으로 나눴다.
- ◆ 그는 1등급에 “네 생물”(Chayot Ha-Kodesh, 겔 1:5,8), 2등급에 “바퀴들 속에 있는 그룹영들”(Ophanim, 겔 1:20-21, 10:17), 3등급에 “용사”(Erelim, 사 33:7), 4등급에 “불속에서 번쩍이는 금불이 같은 것”(Chashmalim, 겔 1:4)을 낙점시켰다. 대신에 “스랍들”(Seraphim, 사 6장)을 5등급, “천사들”(Malachim)을 6등급, “엘로힘”(Elohim)을 7등급, “엘로힘의 아들들”(Bene Elohim, 창 6:2)을 8등급, “그룹들”(Cherubim, 창 3:24)을 9등급, “사람” 모습의 천사(Ishim, 창 18:2, 단 10:5)를 10등급에 분류하였다.

예수 그리스도 왕중의 왕 승리자



저장 항아리(Amphora)에 그려진 달리기 시합과 술잔(Kylix)에 그려진 여신 승리(Nike)와 우승자. 시합에서 이긴 우승자가 월계관을 받아쓰고 있다.

승리의 월계관



헤라의 '진노의 자식'이었던 헤라클레스가 자신에게 운명처럼
부과된 감당하기 힘든 십자가 곧 인생의 가시밭 길을 영웅적으로 마친
후 신들이 머무는 대전에 올라 헤라로부터 월계관을 받아쓰는 모습.

(Martin Desjardins, 1671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헤라가 오른손에 월계관을, 왼손에 지구본 위에 세운 여신 승리를
붙잡고 있고, 헤라클레스가 오른손에 헤라의 과수원인 헤스페리데스의
동산에서 괴물 라돈(뱀)을 무찌르고 정취한 불멸을 주는 황금 사과를 쥐고
있고(Atlas(Atlas)와 비교), 왼손에 올림프 뫼뿔을 쥐고 있으며, 죽은 라돈이
바닥에, 네메아의 사자 가죽이 나뭇가지에 걸쳐있는 모습을 묘사하였다.

예수 그리스도 왕중의 왕 승리자



비잔틴제국시대의 주화(주후 10-11세기 사이)
전면 예수님의 흉안에 십자가 후광을 가슴에 복음서를 새겼고,
뒷면에 "IHVSUS X RISTVS BASILEV BASILE"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왕)이라고 새겼다.



비잔틴제국시대의 주화(주후 969-1081년)
전면에 예수님의 흉안에 십자가 후광을 가슴에 복음서를 새겼고,
뒷면에 "IC XC NIKA" (예수 그리스도, 승리자)라고 새겼다.

예수 그리스도 왕중의 왕



비잔틴시대의 주화(10세기, AD 969-976)
전면에 복음서를 펴고 계시는 예수님을 새겼고, 좌측에 예수(ΙC)를,
오른쪽에 그리스도(XC)를 새겼으며, 뒷면에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IHSVS XPISTVS BASILEV BASILE)이라고 새겼다.

예수 그리스도 승리자



비잔틴시대의 주화(미카엘 4세, AD 1034-41)
전면에 왼손으로 복음서를 안고, 오른손으로 강복하시는 예수님을 새겼고,
좌측에 예수(IC)를, 우측에 그리스도(XC)를 새겼으며,
뒷면에 예수 그리스도 승리자(IC XC NIKA)라고 새겼다.

승리자 이상의 승리자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 달리는 필리포디데스(Philippides, 주전 490년) 마라톤 평원에서 페르시아 군대를 무찌른 직후 아테네 군사였던 필리포디데스가 무장한 채로 아테네까지 40km를 달려가 아테네 시민들에게 승전보를 전하였다: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정복자요!”
“ΧΑΙΡΕΤΕ ΝΙΚΩΜΕΝ”(카이레테 니코멘).

‘복음’이란 뜻의 ‘유앙게리온’(euangelion)은 이 승전보(‘카이레테 니코멘’) 또는 이 승전보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는 말이었다.